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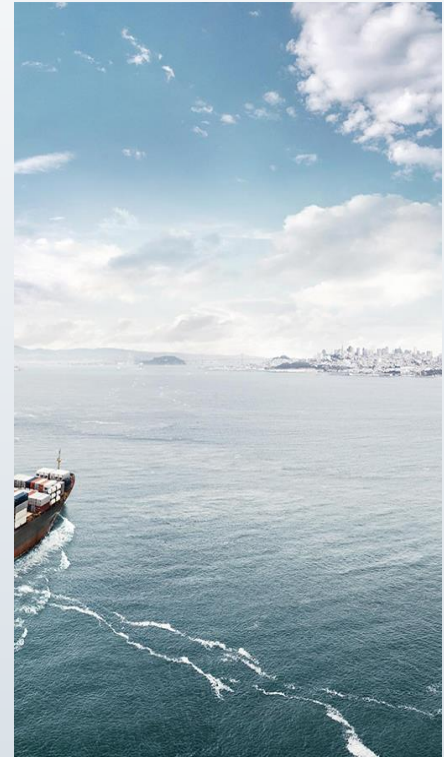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54

May 30,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6
Tankers	10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Issue & Trend	19
Contact Details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제 2 요소수 대란' 없게...韓美日 등 14 국, 脫중국 공급망 첫 협정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 년 만에 공급망 협정을 처음으로 타결했다.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이 공동 대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탈(脫)중국화가 본격화하고 중국 경제를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 일(현지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고 28 일 밝혔다. 2022 년 5 월 출범한 IPEF 에서 맺은 첫 합의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협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코로나 19 위기 당시 마스크·손 세정제 등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원·부자재 수급에서 촘촘히 얽히고설킨다. 한국은 특히 2021 년 하반기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나비효과' 격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었고, 국내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경험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크게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 관련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공급망 위기 즉시 'SOS 요청' 가능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한 협정 가운데 참여국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미국과 아세안 일부 국가 등 14 개 참여국은 2020 년 기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9%를 차지한다.

참여국 구성에서도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함께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이 고루 포함돼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핵심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그간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됐다. 과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땐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최종적으로 연결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IPEF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14 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 시 품목을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 . NEWS

◇'中 배제' 아닌 'IPEF 참여국 협력'에 방점

공급망 협정을 통해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한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꺾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IPEF 참여국 중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가 함께 공급망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선다면 대체 공급선 확보와 공급망 다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은 '중국 배제'보다는 'IPEF 참여국 간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번 협정에서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을 지정', '관세 인하 조치 부여'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 어떤 품목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 상황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참여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의 의미가 적지 않다.

협정 타결과 함께 발표된 공동 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보면 이 같은 상호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등을 노골적으로 겨냥했던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과도 뚜렷한 온도차가 있다.

IPEF 협상에 정통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IPEF 자체가 미국 주도는 맞지만, (협상에서) 중국 배제 요소는 없는 것 같다"며 "이번 협정은 참여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비참여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무역·청정 경제·공정 경제 부문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무역 부문에서는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국들은 무역장벽을 낮추면서 무역과 투자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청정 경제 부문에서는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청정수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I . NEWS

2. '친환경 선박 강자' K 조선, 최고가 수주 행진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초부터 역대급 신조선가 수주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 규제 등으로 활발해진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계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유럽 선주로부터 1300TEU(1TEU는 20 피트 컨테이너 1 개)급 피더선 5 척을 역대 최고가에 수주했다. 선박 한 척당 가격은 6220 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더선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머무르는 중추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이다.

이번에 계약된 선박의 가격이 높아진 것은 친환경 장비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해당 선박은 풍력과 메탄올을 활용하는 이중연료 추진선이다. 벙커씨유 등 기존 화석연료를 쓸 때의 표준형 피더선 가격보다 2.5 배가 높다.

친환경 선박의 신조선가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의 영향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운항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2008 년 대비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70% 줄이는 안건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 월부터 IMO 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를 적용시켰다.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이 제한된다.

이에 국내 조선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2 억 5000 만 달러에 수개월간 머물러 있던 LNG 운반선 가격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최고가를 경신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 월 말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LNG 운반선 2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척당 가격은 2 억 5900 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달 중순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마란가스로부터 LNG 선 2 척을 수주하면서 척당 2 억 5625 억 달러라로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 2 주일도 안 돼 기록을 갈아 치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체가 강점을 보이는 LNG 선 등 친환경 선박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미 3 년치 도크가 차 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 협상력도 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 . NEWS

3. 선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6월 셋째주 금요일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확정됐다. 선원의 날을 6월 셋째주 금요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23일 조명희·김선교·박대수·강민국·권명호·백종현·정점식·전봉민·이만희·윤재옥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금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6월 25일을 선원의 날로 기념해왔지만, 한국전쟁 발발일이어 우리나라 선원들은 사실상 이를 기념하지도 못해왔다.

이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첫 법정기념일인 선원의 날은 올해 6월 16일이다.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선원의 금지와 자부심 제고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국적 선원 확보 및 젊은 층의 선원으로의 취업 유도 등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정해지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평균 1억 8200만원씩 5년 간 총 9억 12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성용 위원장은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전 선원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선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으로 선원들의 복지와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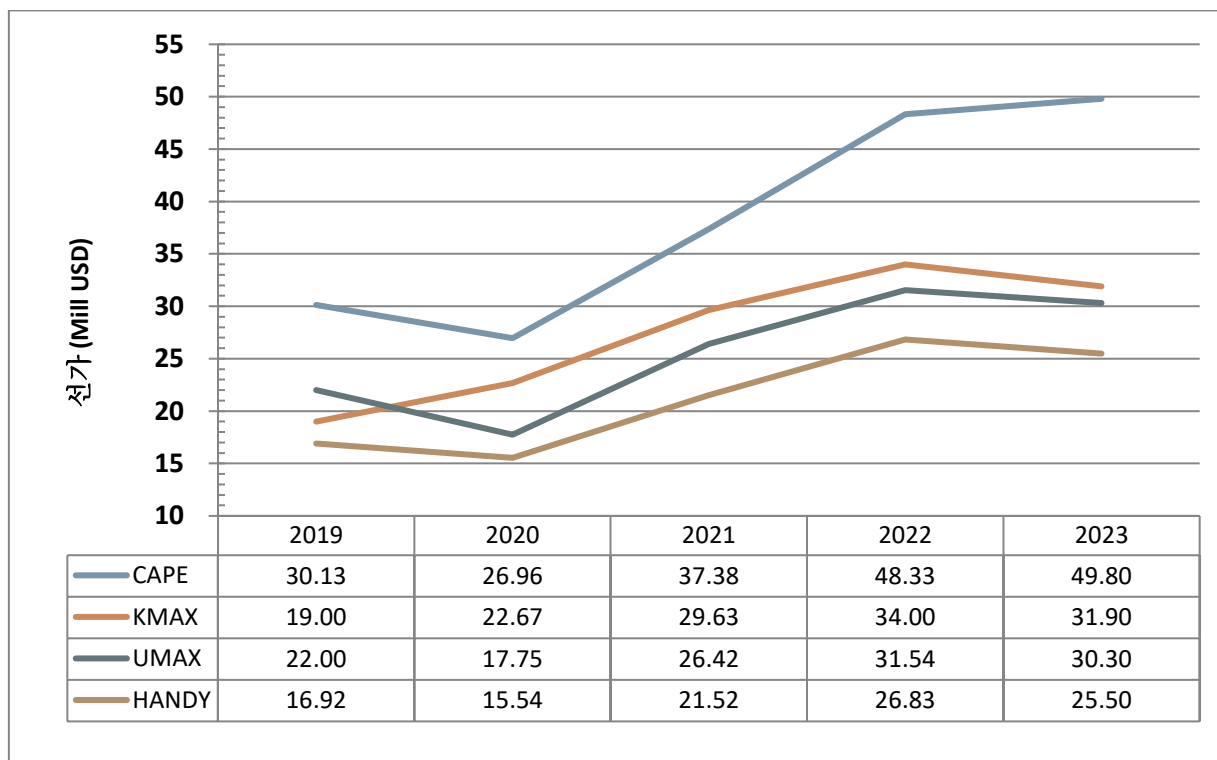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Capesize 180K *Eco-design based since 2021	30.13	26.96	37.38	48.33	49.80
	-14.34%	-10.51%	38.64%	--	3.03%
Kamsarmax 82K *76k before 2020	19.00	22.67	29.63	34.00	31.90
	0.42%	19.30%	30.70%	14.75%	-6.18%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1.54	30.30
	--	-19.32%	48.83%	19.40%	-3.94%
SMAX 58K *Data available before 2021	17.17	15.92	--	--	--
	-4.20%	-7.28%	--	--	--
Handysize 37K	16.92	15.54	21.52	26.83	25.50
	12.18%	-8.13%	38.47%	24.69%	-4.97%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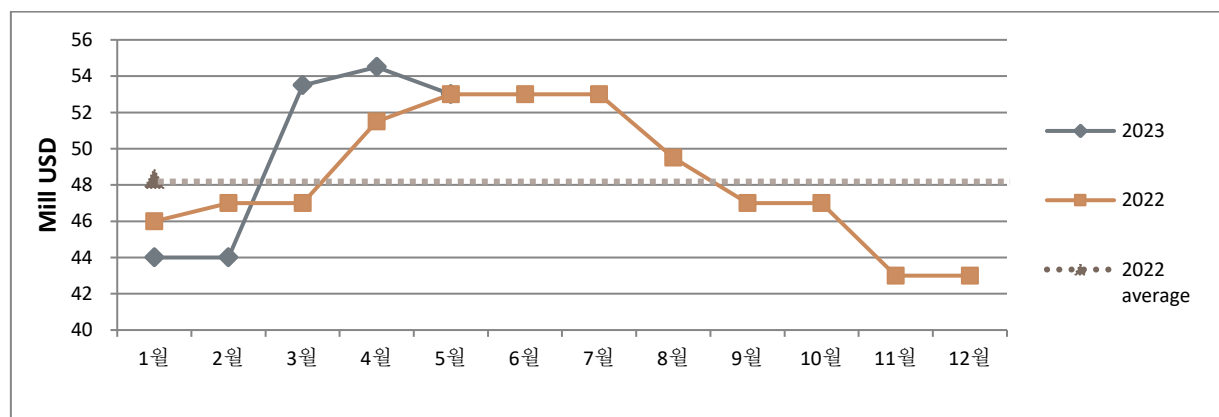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2023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54.50	53.00		49.80
	전월대비	2.3%	0.0%	21.6%	1.9%	-2.8%		--
	전년대비	-4.3%	-6.4%	13.8%	5.8%	0.0%		3.0%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4.00	33.00		31.90
	전월대비	0.0%	0.0%	8.3%	4.6%	-2.9%		--
	전년대비	-11.8%	-13.0%	-8.5%	-6.8%	-13.2%		-6.2%
UMAX (60-61K)	선가	28.50	28.50	31.50	32.00	31.00		30.30
	전월대비	1.8%	0.0%	10.5%	1.6%	-3.1%		--
	전년대비	-6.6%	-12.3%	-4.5%	-5.9%	-8.8%		-3.9%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6.50	26.00		25.50
	전월대비	4.3%	0.0%	6.1%	1.9%	-1.9%		--
	전년대비	-10.9%	-12.5%	-7.1%	-7.0%	-8.8%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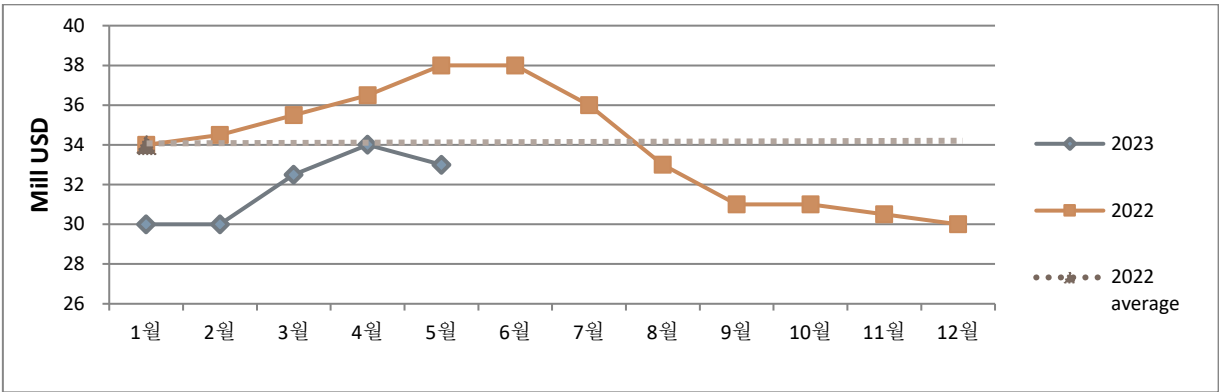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6.83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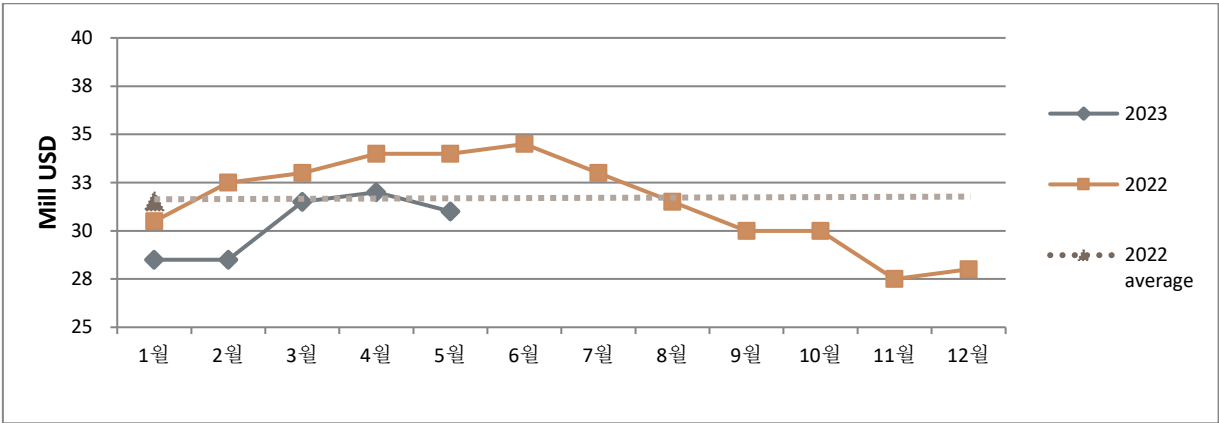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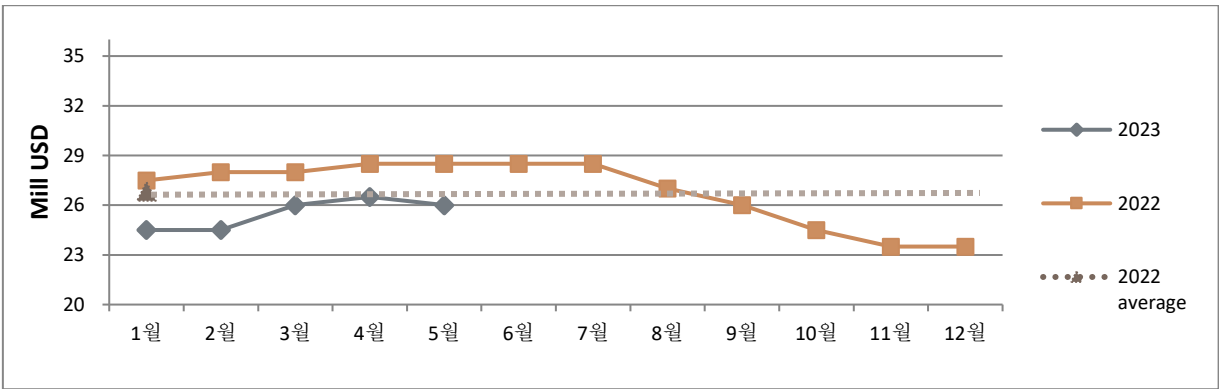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GREAT WENCHAO	75,522	1999	JAPAN	B&W		7.1	Undisclosed buyer
BC	TAURUS CONFIDENCE	63,500	2018	CHINA	B&W	C 4x36t	28	Norwegian buyer
BC	ARIES CONFIDENCE	63,153	2018	CHINA	B&W	C 4x36t	28	
BC	RHL JULIA	55,701	2009	JAPAN	B&W	C 4x30t	16	European buyer
BC	MAGNUM FORTUNE	53,631	2009	CHINA	B&W	C 4x35t	12.9	Indonesian buyer
BC	ATLANTIC ALTAMIRA	43,368	2017	CHINA	B&W	C 4x30t	24.5	Undisclosed buyer
BC	CARIBBEAN SPIRIT	35,283	2009	CHINA	B&W	C 4x30.5t	10.8	Undisclosed buyer
BC	YANGTZE OASIS	34,306	2013	CHINA	B&W	C 4x30t	13.8	Undisclosed buyer
BC	ALICE STAR	32,029	2008	JAPAN	MITSU	C 4x30t	12	Undisclosed buyer
BC	BRIANNA	31,800	2009	CHINA	B&W	C 4x30t	10.6	Turkish buyer
BC	STRAITS BREEZE	31,612	2009	JAPAN	MITSU	C 4x30t	13	Turkish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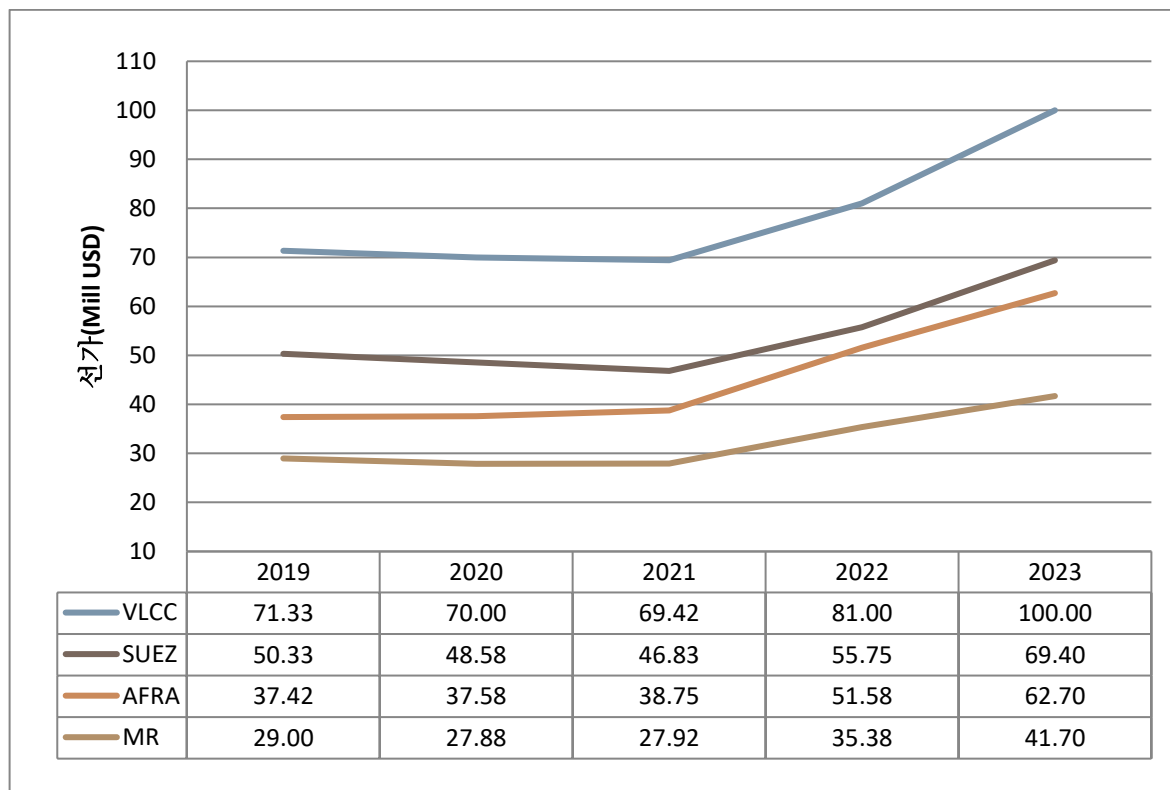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100.00
	10.73%	-1.87%	-.83%	16.69%	23.46%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69.40
	15.60%	-3.48%	-3.60%	19.04%	24.48%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2.70
	17.85%	.45%	3.10%	33.12%	21.55%
MR (51K) *Based on 49K till 2018	29.00	27.88	27.92	35.38	41.70
	9.43%	-3.88%	.15%	26.72%	17.88%

□ TANKER 연평균 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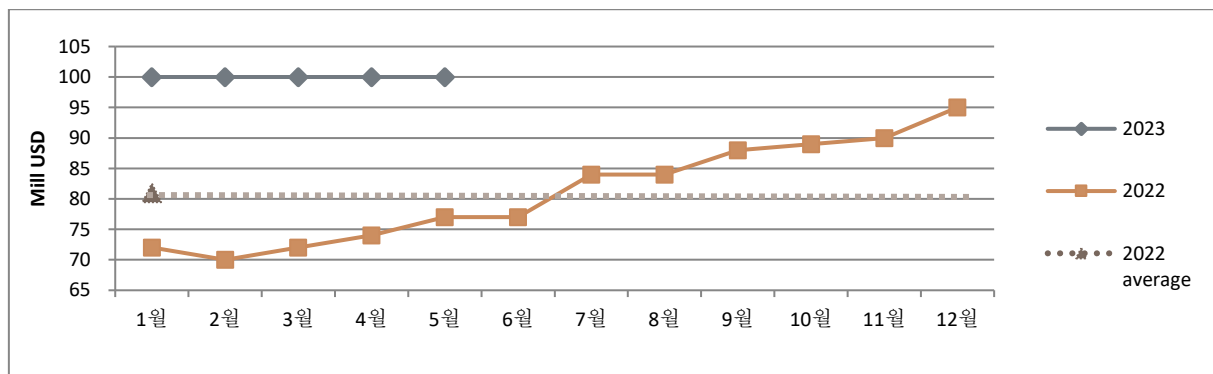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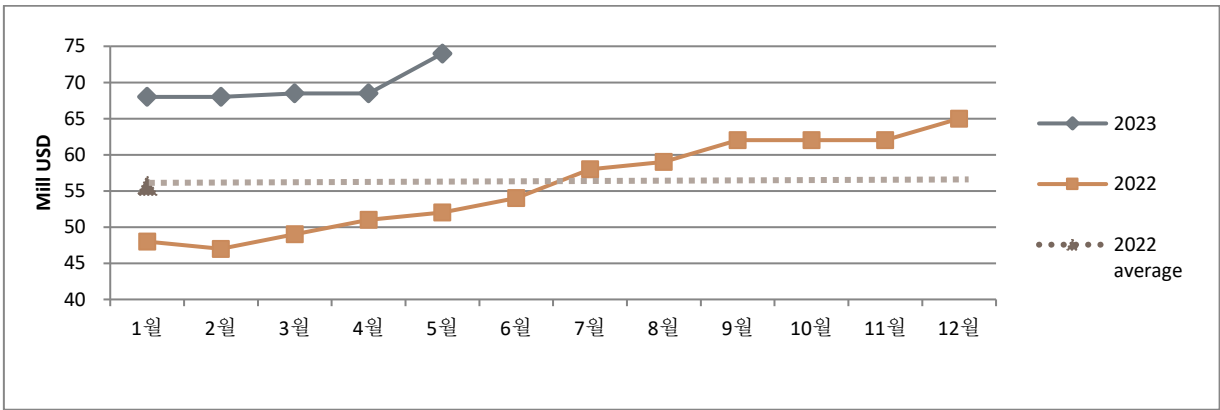
2023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월대비	5.3%	0.0%	0.0%	0.0%	0.0%		-
	전년대비	38.9%	42.9%	38.9%	35.1%	29.9%		23.5%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50	74.00		69.40
	전월대비	4.6%	0.0%	0.7%	0.0%	8.0%		-
	전년대비	41.7%	44.7%	39.8%	34.3%	42.3%		24.5%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63.50		62.70
	전월대비	4.2%	0.0%	0.0%	0.0%	1.6%		-
	전년대비	38.9%	38.9%	38.9%	33.0%	29.6%		21.6%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2.00	42.00		41.70
	전월대비	3.8%	0.0%	0.0%	1.2%	0.0%		-
	전년대비	38.3%	38.3%	43.1%	29.2%	25.4%		17.9%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5.38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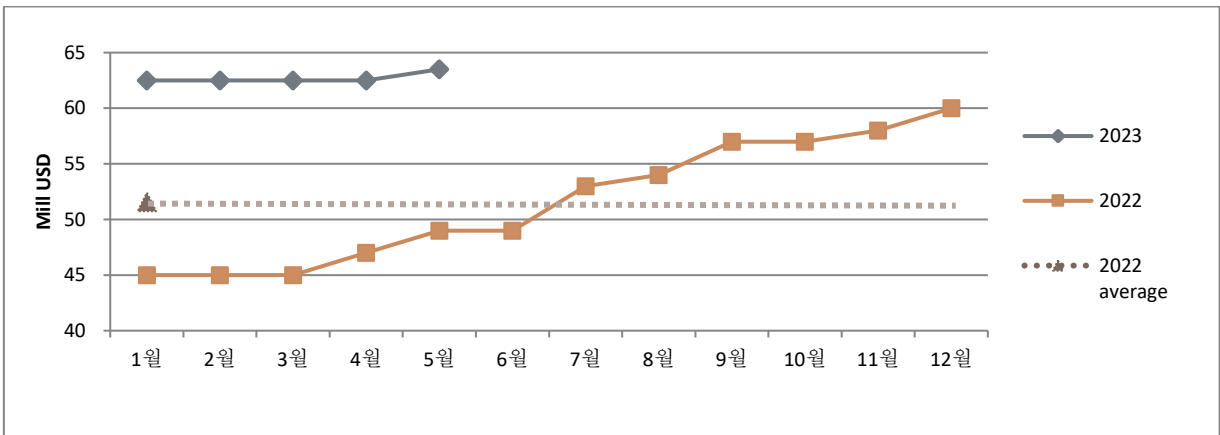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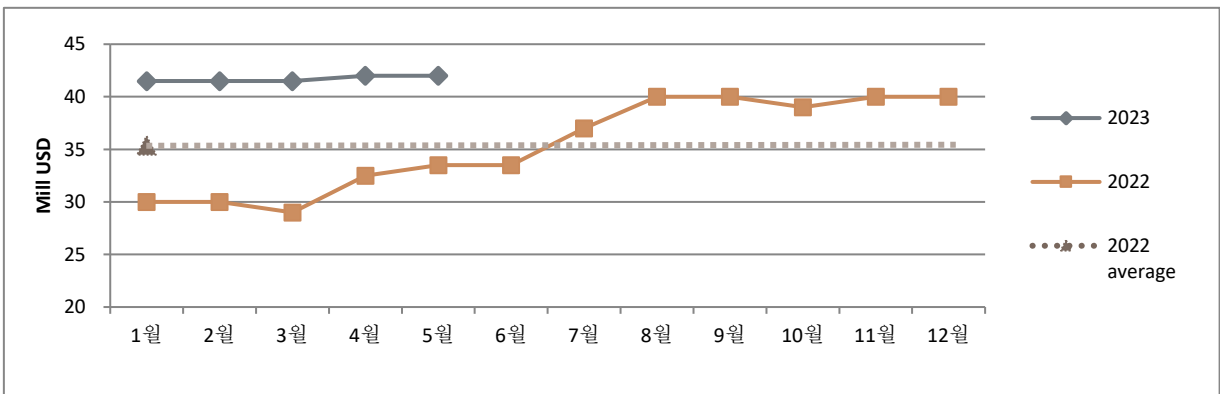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GOOD NEWS	319,430	2002	KOREA	B&W		43	Undisclosed buyer
TANKER	YIO	302,481	2005	JAPAN	MITSU		50.3	Undisclosed buyer
TANKER	ACE	113,005	2008	CHINA	B&W		30	Undisclosed buyer
TANKER	EVERGLADES	112,969	2008	CHINA	B&W		39.8	Middle Eastern buyer
TANKER	SPERCHIOS	106,999	2018	JAPAN	B&W		68.5	Middle Eastern buyer
TANKER	SEASCOUT	105,330	2004	KOREA	B&W		27	Undisclosed buyer, ice 1D, epoxy coated
TANKER	ADAFERA	105,221	2004	JAPAN	SULZER		63-2EB	Undisclosed buyer
TANKER	ASHAHDA	105,215	2004	JAPAN	SULZ			Undisclosed buyer
TANKER	PETROATLANTIC	92,968	2003	KOREA	B&W		19	Singaporean Buyer (Thome Shipmanagement)
TANKER	AMAZON BEAUTY	72,910	2004	KOREA	B&W		19.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USMA	52,684	2007	CROATIA	WART	2	90-4EB	Undisclosed buyer, ice class 1B, epoxy coated
OIL/CHEM	TARGALE	52,660	2007	CROATIA	WART	2		
OIL/CHEM	PILTENE	52,648	2007	CROATIA	WART	2		
OIL/CHEM	UGALE	52,642	2007	CROATIA	WART	2&3		
OIL/CHEM	HIGH LOYALTY	49,990	2015	KOREA	B&W		21.4	Italian buyer (D'Amico)
OIL/CHEM	AKRI	6,137	2008	JAPAN	HANSH	2&3	6.7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CHEM	FAIRCHEM KISO	21,167	2011	JAPAN	B&W		22	Chinese Buyer, stst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SPIRIT OF MUMBAI	31,000	1999	TAIWAN	B&W	2202	TEU	11	Undisclosed buyer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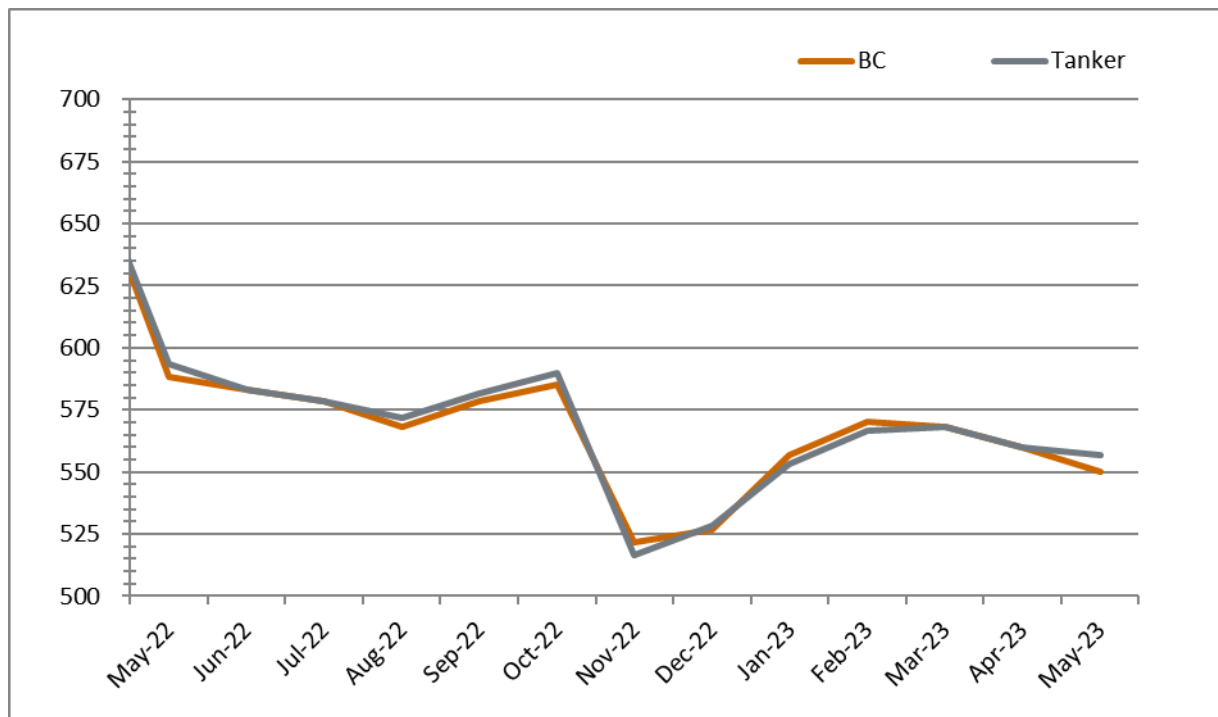
CONT	OCEAN PROBE	18,585	1995	TAIWAN	B&W	1471	TEU	4	Turkish buyer
CONT	BALTIC FULMAR	15,955	2005	GERMANY	B&W	1638	TEU	9.2	Chinese buyer, ice class 1A
CONT	TAN CANG PIONEER	7,200	1996	GERMANY	B&W	600	TEU	2.85	Undisclosed buyer, ice class II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 May	2023 Ma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61.00	-5.0%	593.33	556.67	-0.6%	-6.2%
BC	529.17	53.6%	588.56	70.8%	561.00	-4.7%	588.33	550.00	-1.8%	-6.5%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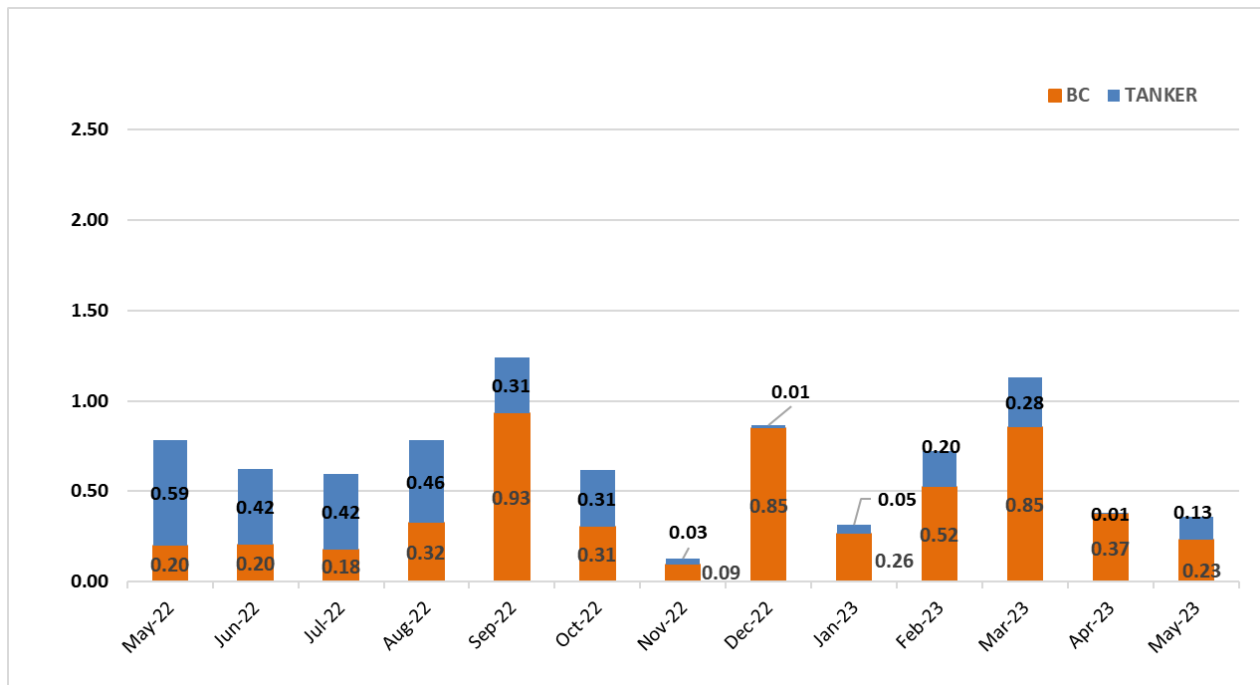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 May		2023 May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59	13	0.13	-78.1%	5	-61.5%
*BC	6.34	123	4.48	63	0.20	4	0.23	17.7%	6	50.0%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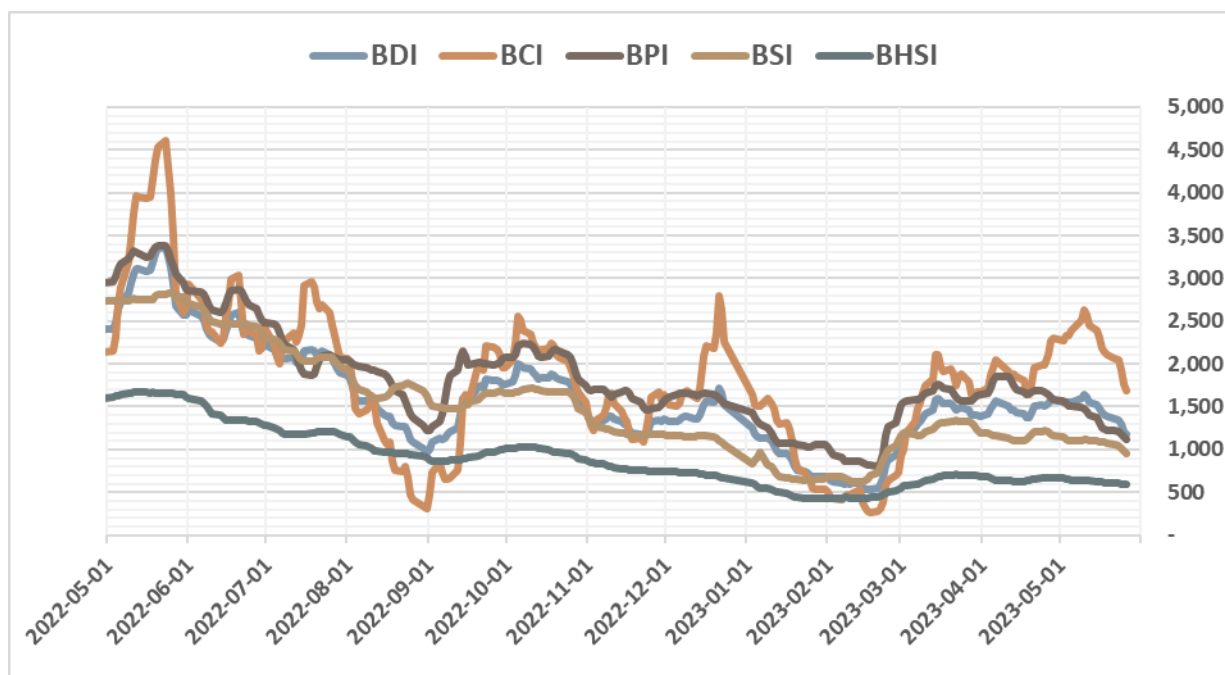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XIN HAI HUI	14,900	4,361	1989	JAPAN	--	625	BANGLADESHI
GC	XIN HAI ZHOU 7	22,297	7,380	1999	CHINA	B&W	563	BANGLADESHI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3-05-26	2023-05-19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172	1,384	▼212.00	3,369	530
BCI	1,683	2,105	▼422.00	4,602	271
BPI	1,119	1,222	▼103.00	3,382	809
BSI	946	1,077	▼131.00	2,833	625
BHSI	588	612	▼24.00	1,673	431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579.50	▼7.50	534.50	▲1.50	531.50	▼5.50
MGO	703.00	▼2.50	675.00	▼10.50	725.00	▲4.00
LSMGO	703.00	▼2.50	675.00	▼10.50	-	-
IFO380	443.50	▼13.00	435.00	▼15.50	423.50	▲9.50

❖기준일 : 05 월 26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3-05-26	2023-05-19	CHANGE
미국 USD	1323.40	1332.70	▼9.30
영국 GBP	1630.96	1654.35	▼23.39
유로 EUR	1419.48	1436.12	▼16.64
중국 CNY	186.93	189.72	▼2.79
일본 JPY (100)	945.72	962.00	▼16.28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청색 채권(Blue Bond)

◆ 청색 채권(블루 본드·Blue Bond)이란 해양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지원 등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청색 채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의 한 종류다. 또 다른 ESG 채권으로는 환경 보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 채권(Green Bond) 등이 있다.

청색 채권은 아직 발행 건수가 많지 않지만 향후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조달 자금은 해양 환경 개선 및 보존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프로젝트에 사용돼야 한다. 해양오염방지 사업 연구개발비, 인재교육비,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이 그 예다.

인도양의 세이셸 공화국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청색 채권을 발행해 1천 500만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은행이 지난 2020년 9억 4천 250만달러 규모의 청색 채권을 발행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해양 보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엔화 표시 청색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수익률에 목마른 일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무라이 채권(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기업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연합뉴스]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Marino Hwang(황 재 웅) President T. 070-7771-6400			
Fleet & Chartering Operation biz@stlkorea.com	Sancho Kim(김 현 진)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H.S. Lee(이 현 성) Director T. 070-7771-6412	
	Mike Hong(홍 창 목) Director T. 070-7771-6417	Henry S.H. Oh(오 수 현)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Anna Lee(이 혜 란) Manager T. 070-7771-6403	Joovi Park(박 주 비)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Jennifer Park(박 영 단) Manager T. 070-7771-6407	Hayden Son(손 호 영)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안 지 영)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Joanne Jin(진 정 식)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Sale and Purchase Broking snp@stlkorea.com	Neal S.I. Kwon(권 순 일) President T. 070-7771-6410		
	Jack Kim(김 종 수) Director T. 070-7771-6411	Nova Cha(차 해 정)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